



멘탈 바사삭

이동글의 국어 고난도 N제

도란도란

이동글의 국어 고난도 N제

멘탈 바사삭

이동글 수능국어 시리즈의 마지막인 국어 고난도 N제입니다.

‘이동글 수능국어’는 수능 국어 시장에서 최초로 지문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달아 기출문제집을 선보였습니다.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고난도 N제도 지문에 대한 핵심 요약 해설을 달아 여러분에게 선보입니다.

문제 구성

- ① LEET, MEET, DEET, PEET
- ② 사관학교
- ③ 교육청 모의고사

위의 문제들 중 수능에 맞는 지문들을 선별하였습니다.

내용 구성

STEP 1. 쉬운 지문

‘멘탈 바사삭’의 내용 중 가장 쉬운 파트입니다. 두뇌 트레이닝에 들어가기 전 예열 단계에 해당합니다. 3등급 정도의 학생이라면 무난하게 풀어낼 수 있는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TEP 2. 중간 이상의 난이도 지문

본격적으로 두뇌 트레이닝에 들어갑니다. STEP 1보다 어려운 지문을 통해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세요.

STEP 3. 하프 모의고사

총 3회분의 하프 모의고사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각 회차는 화작문이 제외되어 비문학과 문학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화작문 문제 풀이 시간인 20분을 제외하고 60분 내로 풀어주면 됩니다. 보다 시험장 느낌을 살려 촉박하게 풀고 싶다면 5분을 제외하고 55분 내로 풀어주면 됩니다.

공부 방법

- ① 책에 제시된 시간에 맞게 지문을 읽고 푼다.
- ② 정답 확인
- ③ 해설지의 지문 해설을 읽으면서 해당 지문 부분에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는다.
- ④ 다시 지문을 정독하고 풀어본다.
- ⑤ 문제 해설을 읽고 이렇게 풀어야 한다는 걸 느낀다.

※물론 본인에게 맞게 나름대로 변형해서 공부해도 좋습니다.

학습 계획

‘멘탈 바사삭’은 총 20일 간의 두뇌 훈련 책입니다. 아래의 계획표에 따라 학습을 하면 20일 내로 학습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STEP 1		STEP 2	
1일	3개	10일	4개
2일	3개	11일	3개
3일	3개	12일	3개
4일	2개	13일	3개
5일	3개	14일	2개
6일	2개	15일	3개
7일	2개	16일	2개
8일	3개	17일	2개
9일	2개		

STEP 3	
18일	1회분
19일	2회분
20일	3회분

부가 자료

‘멘탈 바사삭’ 구매자는 추가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cafe.naver.com/doranexam에 가입한다.
- ② 자료 받는 방법에 대해 글을 읽는다.

STEP 1		
6쪽	언론보도의 객관성	사회
8쪽	중간상인	사회
10쪽	대중의 보도 내용 수용	사회
11쪽	파수견 기능	사회
13쪽	동물 재판	사회
15쪽	위임	사회
17쪽	신제품 개발 방식	사회
18쪽	인간의 인지 발달	사회
20쪽	베이즈주의	사회
22쪽	범주 판단 과정	사회
24쪽	합의에 대한 이해	사회
26쪽	회의주의의 역할	인문
28쪽	철학적 근대	인문
30쪽	정의론	인문
32쪽	리버티 밸런스를 쓴 사나이	예술
34쪽	현대 음악의 전통적 시간성 해체	예술
36쪽	미술사학	예술
38쪽	멜로 드라마	예술
40쪽	양자 물리학	과학
42쪽	과학의 진보	과학
44쪽	판 구조 이론	과학
46쪽	계통분류학 연구	과학
48쪽	수동형 RFID	기술

STEP 2		
52쪽	사회학적 상상력	사회
54쪽	정당 수 산정	사회
56쪽	베버의 서구 근대법	사회
58쪽	경제학에서의 법적 판단	사회
60쪽	금전소비대차 계약	사회
62쪽	아도르노와 피스크의 대중문화	사회
64쪽	권리의 문법	사회
66쪽	상위선	인문
68쪽	철학적 글쓰기 방식	인문
70쪽	멜랑콜리	인문
72쪽	쾌락주의	인문
74쪽	이기주의	인문
76쪽	법과 선의 관계	인문
78쪽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인문
80쪽	헤겔의 미학과 체계 이론 미학	예술
82쪽	오존	과학
84쪽	비대칭적 의존 관계	과학
86쪽	장기강화	과학
88쪽	지방의 체내 소화 원리	과학
89쪽	역류 열전달 이론	과학
91쪽	주파수	기술
93쪽	VOD	기술

STEP 3	
95쪽	실전 모의고사 1회분
111쪽	실전 모의고사 2회분
127쪽	실전 모의고사 3회분

부록	
142쪽	빠른 정답

이동글의 국어 고난도 N제

멘탈 바사삭

STEP 1

6

이동글 국어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6분 30초]

언론의 객관성에 대한 논의에서 객관성은 ㉠ ‘참된 객관성’, ㉡ ‘합의된 객관성’, ㉢ ‘수용된 객관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참된 객관성은 인간의 주관적 해석이 완전히 배제된 객관성이다. 어떤 관찰 대상이라도 인간의 오감으로는 완전하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참된 객관성에는 도달할 수 없다. 참된 객관성은 절대적이고 이상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언론에서 참된 객관성이 구현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합의된 객관성은 취재·보도의 절차 및 형식과 관련된다. 언론인들은 관례적으로 합의된 절차와 형식에 맞추어 취재와 보도를 하는데, 이때 보도가 갖는 객관성을 합의된 객관성이라고 한다. 가령, 일반적으로 뉴스 기사는 편견이 개입될 여지를 배제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작성되고, 육하원칙과 같은 특정 형식을 통해 전달되므로 합의된 객관성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수용된 객관성은 실재와의 조응 정도를 의미한다. 언론 보도의 객관성의 근거는 그 보도가 실재하는 현실, 즉 실제의 사건을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이다. 즉, 객관성의 검증은 이미 합의된 절차나 형식에 달린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그대로의 실재를 얼마나 정확하게 재현해 내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인데, 언론이 하나의 사건을 현실 그대로 재현했다면 그 기사는 수용된 객관성이 구현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 현실 반영 정도를 독자들도 받아들인다면, 그 역시 수용된 객관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언론의 객관성 문제는 실제 취재·보도 과정 중 발생하는 ‘사실과 의견의 구분’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구분은 검증이 가능한 사실과, 주관적 판단이나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의견을 구분하면 기사의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한다. 그러나 실제 언론의 보도에서는 특정 경향성을 나타내어 객관성을 상실하는 경우가 흔히 나타난다. 우선 사실의 선택부터가 경향성을 지니는 경우가 있다. 복잡한 사실들로 구성된 사건 중 일부의 취재원과 인용문을 선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전체 중 일부 사실만 강조하는 것이다. 윤색적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기사도 적지 않다. 이는 특정한 관점에 근거한 평가적 함축이 있는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사건이나 대상 등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의미의 함축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전제된 가치의 문제도 있다. 언론이 기사를 작성할 때 중요하다고 간주하거나 가치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당연한 전제로 가정하는 것으로, 어느 한 가지 가치만을 기본 전제로 삼고 다른 가치는 무시한 채 사실 관계를 기술하는 것이다. 근거 없는 의견도 있다. 이는 사실적 근거가 없는 평가, 판단, 의견을 기사화하는 것이다. 일관성의 문제도 있다. 동일한 사안을 상반된 가치, 이념, 주장, 판단 등을 동원해서 편의에 따라 한 조건에서는 긍정적으로, 다른 조건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 기사

를 통해 비판받거나 평가받는 당사자의 의견을 기사 내용의 구성 과정에 정당하게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향적 뉴스를 접한 독자는 언론사가 제공하는 정보와 그 해석의 틀에 영향을 받게 된다.

언론은 왜 이런 경향성을 보이는가? 자신의 경향성을 알지 못해서 그러는가? 알면서도 무능해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인가? 먼저, 알지 못해서 그런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래전부터 수많은 언론학자들이 언론의 경향성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제시한 바 있고, 이에 대해 관련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 또한 자체적으로 제정한 윤리 강령에 이와 관련한 조항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이 이런 비판을 정말 모른 채, 경향적으로 보도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언론이 경향적 보도를 하는 줄 알면 서도 다른 이유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언론의 경향성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배양되어 전승되는 일종의 역사적 전통이다. 논쟁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가치를 옹호하고 사회를 계몽하는 것이 언론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전통에 따라 ‘알면서도’ 경향성을 유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다른 설명도 가능하다. 언론은 전략적으로 경향성을 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갈등적인 사회 분위기에서는, 모든 관점을 아우르도록 편집하는 것이 잠재적 독자를 확보하는 상책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독자를 저버리는 하책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한 독자층을 유지하고, 광고 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경향성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언론인은 객관성 구현에 대해 회의적이면서도 언론 현장에서는 객관성의 이념을 완전히 유기하지는 않는다. 언론은 사실과 의견의 구분을, 보도가 객관적인 것처럼 전달하는 수단이자 언론의 주관적 판단을 드러내지 않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1. 밑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 ① 사실과 의견의 구분은 취재 보도 기준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다.
- ② 사실과 의견의 구분은 기사의 보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
- ③ 기사의 경향성은 언론의 계몽적 기능을 강조하는 전통과 관계가 있다.
- ④ 언론의 경향성은 사실과 의견의 구분에 대한 언론의 무지에 기인한 것은 아니다.
- ⑤ 언론은 사실과 의견의 구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보도가 객관성이 있는 것처럼 드러낸다.

2.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현실적으로 구현될 수 없다.
- ② ㉡은 보도의 관례적 절차를 따르면 성취될 수 있다.
- ③ ㉡은 보도 과정의 형식보다 보도된 내용을 중시한다.
- ④ ㉢은 언론과 독자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다.
- ⑤ ㉢은 실재하는 현실에 조응하도록 사건을 전달하면 얻을 수 있다.

3. 〈보기〉의 기사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의혹 폭로전, TV 토론에서 후보 간 혈투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판세 뒤집힐 수도

여론 조사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김OO 후보와 이OO 후보가 TV 토론에서 폭로전을 벌였다. A 방송국이 주최한 오늘 토론에서 ㉡ 이 후보는 김 후보의 돈 선거 의혹을, 김 후보는 이 후보의 사전 선거 운동 의혹을 제기했다. ㉢ 이 후보는 “김 후보의 사무장이 선거 운동원에게 거액의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찍힌 사진을 확보했다.”라며 김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 토론을 시청한 박OO 씨는 “돈 선거 후보가 당선돼서는 안 된다.”라며 김 후보를 비판했다. 선거일까지 두 차례의 TV 토론이 더 진행될 예정이다. ㉤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책 대결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① ㉠은 혈투라는 과격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윤색적 표현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은 돈 선거, 사전 선거 운동 등의 제기된 의혹들을 기사화함으로써 일관성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은 김 후보의 입장은 포함하지 않고 이 후보의 입장만을 제시함으로써 공정성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일부 취재원의 발언만을 인용함으로써 사실의 선택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은 정책 대결을 하면 투표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인할 수 없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근거 없는 의견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6분]

한국인들이 미국에 본격적으로 이민을 간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이다. 이제 한국계 미국인들은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면서 미국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민 사회를 이루고 있다. 한국계 이민 사회의 중요한 직업적 특징 중의 하나는 다른 민족에 비하여 소규모 개인 사업을 하는 비율이 유난히 높다는 것이다. 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계 미국인이 자영업을 하는 비율은 미국인 전체 평균보다 70% 정도 높다.

한국계 이민 사회에서 자영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영어 능력의 한계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 그런데 이민 1세대 한국계 자영업자들의 영어 능력과 교육 수준이 사기업에 종사하는 한국계 임금 노동자보다 더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의 영어 능력이 주류 사회의 직장에 취업할 정도에 이른다고 하기는 어렵고, 비록 대학 졸업자의 비중이 높다고 하나 한국에서 이들이 취득한 학력이나 자격증은 자신들이 원하는 직업을 구하는 과정에서 거의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주류 사회의 선호 직업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쉽게 가질 수 있는 직업은 주류 사회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피할 수 있는 직업이다. 이는 주류 사회의 사람들이 더 이상 이익을 기대할 수 없어 회피하거나 떠나 버린 분야이다. 대표적으로 소수 민족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이나 노동 집약적 사업 등이 있다. 이런 성격의 자영업이 한국계 미국인들의 사업상의 특징을 이룬다.

불가피하게 자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계 이민자들에게 사업 준비와 운영에 이용할 수 있는 민족적 자원과 개인적 자원이 있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족적 자원으로 첫째, 한국계 이민자들은 상당수가 특정 지역에 모여 살고 종교 단체를 중심으로 조직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업에 관한 정보를 많이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다. 둘째, 이들은 가족 관계가 온전히 보전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임금의 가족노동을 이용할 수 있었다. 개인적 자원으로는 교육과 자본 조달 능력을 들 수 있다. 이들이 한국에서 받은 높은 교육 수준은 비록 주류 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사업체 운영의 기초 능력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이들이 한국에서 이룩한 사회적 배경은 일정한 개인 저축과 용이한 자본 조달을 가능하게 하였다.

한국계 이민자가 미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소규모 개인 사업에 집중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중의 하나가 '중간 상인 이론'이다. 중간 상인 집단의 중요한 특징은 경제 구조 내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고용주와 피고용인, 소유주와 세입자, 상류 계층과 하류 계층 사이에서 중개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민 사회 형성 초기에 많은 한국계 이민자들

은 대도시의 빈민 지역에서 소규모 상점을 운영했다. 한국계 이민자 소유 사업체들은 주로 소득이 낮은 라틴계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중간 상인' 역할을 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류 사회의 상품 공급자, 건물주, 정부 기관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자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한국계 이민자들은 주류 사회와의 갈등에 대처하고 사업상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민족적 결속을 강화하였다. 이들은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한국계 소매상 단체를 설립하는 한편, 경비 절감과 구매 협상력의 강화를 위하여 유통 과정을 하나의 관리 체계로 결합하는 '수직적 계열화'를 실시하였다.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모여서 비슷한 사업을 하는 한국계 소매상들은 유력한 한국계 도매상을 중심으로 주문을 하나로 모아 좋은 가격으로 공급자와 협상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은 수직적 계열의 관리자로부터 외상 공급, 창업 자금 대출 등과 같은 지원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수직적 계열화의 부정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었다. 이 네트워크에 너무 많은 한국계 소매상이 참여한 경우에는 소수의 상품 시장에 집중함으로써 시장 포화 현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이 네트워크에 끼지 못한 다른 민족들이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수직적 계열화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여 결국 사업 기회에서 배제되는 문제도 발생하였다.

수직적 계열화는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한국계 이민 사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계 자영업자들은 지속적으로 자본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지만 소규모 사업체에서의 장시간 노동이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4. 윗글에서 한국계 이민자들이 자영업을 많이 하게 된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영업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었다.
- ② 가족 관계를 이용한 인력 조달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 ③ 한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으로 원하는 직업을 얻기 쉬웠다.
- ④ 영어 능력의 한계로 직업 선택에 한계가 있었다.
- ⑤ 주류 사회의 선호 직업에 진출하기 어려웠다.

5. 윗글의 '중간 상인'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간 상인 역할은 높은 이익을 보장하였다.
- ② 상류 계층이 소비하는 상품을 거래하는 역할을 하였다.
- ③ 중간 상인 역할은 소비자들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다.
- ④ 중간 상인 역할을 위해 큰 규모의 자본 조달이 요구되었다.
- ⑤ 중간 상인 역할의 어려움에 대응할 때 민족적 자원을 많이 활용하였다.

6. 윗글에서 수직적 계열화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은?

- ① 경쟁이 완화되어 한국계 자영업자 간의 조화가 이루어졌다.
- ② 주류 사회의 상품 공급자에 대한 협상력이 강화되었다.
- ③ 타민족 자영업자를 포용하여 사회적 기여를 하였다.
- ④ 일정 지역에서 업종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다.
- ⑤ 생업을 위한 노동 시간이 감소하였다.

[7~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6분]

일반적으로 과학기술 보도는 대중이 일상적으로 접하지 못하는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는 특성을 지닌다. 대중은 과학기술의 새로운 사실들이나 사건들을 주로 언론에 의존하여 접하며, 과학기술에 대한 언론의 프레임 설정과 대중의 인식 정도에 따라 대중의 보도 내용 수용이 달라진다. 특히 언론 보도 내용이 건강이나 안전에 위험이 되는 요소들을 포함하는 경우, 그 양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이는 '부정 편향성(negativity bias) 가설', '점화 효과', '위험 커뮤니케이션 증폭 모델' 등의 이론적 모델을 통해 설명되기도 한다.

'부정 편향성 가설'에 의하면, 보도 시 설정된 프레임이 긍정적일 때보다 부정적일 때에 그 보도를 대중이 주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정보로서의 가치도 더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성 때문에 뉴스에 내재된 위험성이 클수록 부정 편향성의 효과도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점화 효과'는 기본적으로 연상 효과에 기초한다. 인간의 정보 처리 네트워크인 두뇌는 매스미디어가 제공하는 어떤 소리나 이미지에 노출되면 두뇌 속에 이미 저장되어 있던 관련 이미지의 연상을 촉발한다. 그 촉발의 결과가 점화 효과이다. 불량 식품 관련 보도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멜라민 파동'을 자연스럽게 연상하게 하는 것이 그 예이다.

'위험 커뮤니케이션 증폭 모델'은 특정 위험 사건의 보도가 사회 내에서 구체화되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양상을 제시하는데, 대표적으로 두 모델을 들 수 있다. 그중 하나로 정보가 정보원에서 채널을 통해 수신자로 전달된다는 고전적인 커뮤니케이션 모델에 근거한 렌 모델이 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위험 사건은 정보원에게 우선 전달되며 이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전달자에게 전달된다. 이때 정보원에는 과학자를 비롯한 이해 당사자와 목격자가 포함되며, 전달자에는 언론, 유관 기관, 오피니언 리더 등이 포함된다. 이 위험 사건이 수용자인 대중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정보원과 전달자의 이해관계나 요구 사항이 개입하여 위험 인지가 증폭될 수 있으며, 이것이 수용자에게 보다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슬로비치 모델은 과학기술 보도의 사회적인 증폭 양상에 보다 주목하는 이론이다. 이 모델은 언론의 과학기술 보도가 어떻게 사회적인 증폭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효과가 사회적으로 어떤 식으로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특정 과학기술 사건이 발생하면 뉴스 보도로 이어진다. 이때 언론의 집중 보도는 수용자 개개인의 위험 인지를 증폭시키며, 이로부터 수용자인 대중이 위험의 크기와 위험 관리의 적절성에 대하여 판단하는 정보 해석 단계로 넘어간다. 이 단계에서 이미 증폭된 위험 인지는 보도된 위험 사건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미쳐 보도 대상에 대한 신뢰 훼손과 부정적 이미지 강화로 이어진다. 이로 말미암은 부정적

영향은 그 위험 사건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유관 기관, 업체, 관련 과학기술 자체에 대한 인식에까지 미치게 되며, 또한 관련 기업의 매출 감소, 소송의 발생, 법적 규제의 강화 등의 다양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게 된다.

7. 윗글의 '과학기술 보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용자들의 동일한 반응을 유도한다.
- ② 과학기술 전문가가 위험 인지를 증폭시키기도 한다.
- ③ 수용자의 과거 경험과 위험 인지는 낮은 상관관계를 갖는다.
- ④ 보도의 내용이 전문적일수록 뉴스의 부정 편향성이 증폭된다.
- ⑤ 긍정적 내용의 보도는 수용자에게 낮은 가치를 지닌 뉴스로 인식될 것이다.

8. <보기>는 신종 플루와 관련한 최근의 언론 보도 내용이다. 수용자들이 보인 반응 중 윗글의 이론적 모델들로 설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보 기>—

- 신종 플루의 발원지로 알려진 멕시코 동부 한 마을 인근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미국계 양돈업체 A 사의 공장은 불법으로 분뇨를 배출하여 거액의 벌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 신종 플루 감염 환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다국적 제약사들의 신종 플루 백신 및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으며 조만간 신종 플루가 유행하는 국가들에 예방 백신들이 공급될 것이다.
- 다국적 제약기업 B 사가 개발한 신종 플루 예방 백신으로 동물 실험을 하던 중 대상 동물들이 갑자기 모두 죽는 사고가 있었다.
- 신종 플루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도 실질적인 위기 대응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 ① 신종 플루에 대한 대응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인식이 신종 플루로 인한 대재앙의 공포로 이어지고 있다.
- ② 신종 플루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는 언론 보도를 믿기 힘들므로 정정 보도를 내도록 요구하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 ③ A 사의 분뇨 배출이 신종 플루 발생의 원인이라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집단소송을 통해 A 사의 책임을 묻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 ④ 신종 플루의 인체 감염 건수가 늘고 있다는 보도에 2년간 1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2005년 조류 독감의 공포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 ⑤ 신약이 개발되었다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동물 실험에서 발생한 사고로 미루어 보아 그 효능과 안전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확산되고 있다.

[9~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7분 20초]

정치권력의 남용과 사회적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의 기능은 건전한 여론 형성 기능과 함께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인식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을 파수견(watchdog)에 빗대어 표현하는데, 이를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파수견 기능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아닌 언론 기관의 표현의 자유를 의미한다. 즉 개인의 기본권적 특성보다는 언론 기관에 부여되는 제도적 권리의 특성을 지닌다.

파수견 기능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라면 그것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미국의 ㉠ 전통적인 시각은 1791년에 제정된 수정 헌법 제1조의 의미를 언론 기관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언론의 자유(freedom of the press)를 보장하는 이 조항은 의회가 언론을 억압하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시각에 따르면, 독립 시기를 전후로 정부를 비판하는 글들이 신문에 자유롭게 게재되었다는 점에서 이미 비판적인 언론 이데올로기가 존재했다고 한다. 이에 근거하여 수정 헌법 제1조가 차후에 언론 기관에 자연스럽게 적용될 수 있었다고 인식한다. 이 시각은 언론 기관의 핵심적 기능을 '견제 가치'에서 찾는다. 그래서 비록 언론의 상업주의적 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 권력의 남용보다는 폐해가 덜하기 때문에 파수견 기능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언론 관련 규제가 최소한도로 제한되어야 하며 심지어 공익을 위한 경우에는 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이 성립될 수 없다고까지 주장한다. 아울러 보다 적극적인 파수견 기능을 위해서 국가 기관에 대한 접근권을 강화하는 것과 같은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고 제안한다.

그런데 이러한 시각은 헌법의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미국의 언론법 학자 글리슨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발생한 명예 훼손 소송을 분석하면서 전통적인 시각과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그는 법원이 언론의 파수견 기능을 언론 기관의 헌법적인 권리로 인정하게 된 것은 언론의 취재 보도 과정의 특수성에 대한 법원의 인식과 직결된다고 밝힌다. 19세기 말 언론의 보도 행태는 대단히 선정주의적인 경향을 보였고 이에 대해 사회적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명예 훼손 소송 건수도 급증하게 되는데, 진실 보도를 요건으로 하는 명예 훼손법의 적용으로 인해 언론은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었다.

당시 신문사의 수가 늘면서 신문 산업이 크게 성장하게 되는데, 신문사들은 명예 훼손 소송을 신문 산업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로 판단하였다. 이들은 명예 훼손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파수견 기능을 면책 특권으로 입법화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은 언론의 공적 기

능에 대한 법원의 인식을 확대하였으나 소송의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예를 들어 1896년 시 공무원을 비판한 기사로 인해 벌어진 명예 훼손 소송에서 루이지애나 주 대법원은 언론의 파수견 역할은 인정했으나 문제가 된 기사가 취재 보도 자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주 대법원은 신문의 파수견 역할이 진실을 밝히고 시민 정신을 고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다만, 이는 일관되고 합리적인 취재 및 편집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즉 법원은 언론의 파수견 기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여전히 진실 보도를 강조함으로써 취재 과정상의 복잡성을 내세운 언론의 주장은 수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 경향은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 결국 글리슨에 따르면 파수견 기능을 헌법적으로 보호하는 근거는 명예 훼손법 발전의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9. 윗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미국 언론의 파수견 기능'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가 기관에 대한 언론 기관의 접근권을 확대해 줌으로써 이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 ② 국가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 기능으로서 헌법상의 보호를 받는다.
- ③ 이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잘 실현될 수 있다.
- ④ 언론의 상업주의화에도 불구하고 이 기능은 원칙적으로 보호된다.
- ⑤ 이 기능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10. <보기>에서 글리슨의 연구에 나타난 사회적 상황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고른 것은?

<보 기>

- ㄱ. 언론사는 파수견 기능을 내세워 명예 훼손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 ㄴ. 언론사는 명예 훼손법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ㄷ. 언론사는 취재 보도 과정의 구조적 특수성을 법원이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 ㄹ. 법원은 언론이 공적 역할은 하지만 파수견 기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ㅁ. 법원은 보도의 진실성은 명예 훼손 소송에서 언론이 면책되기 위한 요건이라고 판단했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ㅁ
-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11. ㉠을 통해 <보기>를 해석한 것 중 적절한 것은?

<보 기>

미국 시카고의 S 신문사는 관계 공무원들이 업주들에게 뇌물을 요구한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취재하기 위해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위장 술집을 차렸다. 한 달 후 S 신문사는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찍은 사진과 함께 20명의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 기사를 3주간 연재물로 게재하였다. 관련 공무원들은 신문사의 보도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S 신문사는 자신들은 공익을 위해 보도하였다고 항변하였다.

- ① 명예 훼손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S 신문사의 면책 요건을 넓게 해석해야 한다.
- ② S 신문사의 위장 술집을 통한 취재 방식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 ③ 비리와 연루된 공무원이라도 S 신문사를 상대로 명예 훼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S 신문사가 공무원의 비리를 장기간 연속으로 게재한 것은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을 넘어서는 일이다.
- ⑤ 공익을 위해 보도할 경우에는 취재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S 신문사의 취재 보도의 자유에 대한 허용 범위가 달라진다.

STEP 1		
문제6	언론보도의 객관성	해설2
문제8	중간상인	해설3
문제10	대중의 보도 내용 수용	해설4
문제11	파수견 기능	해설5
문제13	동물 재판	해설6
문제15	위임	해설8
문제17	신제품 개발 방식	해설9
문제18	인간의 인지 발달	해설10
문제20	베이지주의	해설12
문제22	범주 판단 과정	해설14
문제24	합의에 대한 이해	해설16
문제26	회의주의의 역할	해설17
문제28	철학적 근대	해설18
문제30	정의론	해설20
문제32	리버티 밸런스를 쓴 사나이	해설22
문제34	현대 음악의 전통적 시간성 해체	해설23
문제36	미술사학	해설25
문제38	멜로 드라마	해설27
문제40	양자 물리학	해설29
문제42	과학의 진보	해설30
문제44	판 구조 이론	해설31
문제46	계통분류학 연구	해설33
문제48	수동형 RFID	해설35

STEP 2		
문제52	사회학적 상상력	해설36
문제54	정당 수 산정	해설38
문제56	베버의 서구 근대법	해설40
문제58	경제학에서의 법적 판단	해설42
문제60	금전소비대차 계약	해설43
문제62	아도르노와 피스크의 대중문화	해설45
문제64	권리의 문법	해설46
문제66	상위선	해설47
문제68	철학적 글쓰기 방식	해설49
문제70	멜랑콜리	해설50
문제72	쾌락주의	해설52
문제74	이기주의	해설53
문제76	법과 선의 관계	해설55
문제78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해설56
문제80	헤겔의 미학과 체계 이론 미학	해설58
문제82	오존	해설59
문제84	비대칭적 의존 관계	해설61
문제86	장기강화	해설62
문제88	지방의 체내 소화 원리	해설64
문제89	역류 열전달 이론	해설65
문제91	주파수	해설67
문제93	VOD	해설68

STEP 3		
문제95	실전 모의고사 1회분	해설70
문제111	실전 모의고사 2회분	해설77
문제127	실전 모의고사 3회분	해설84

언론 보도의 객관성 자료 배열

[1문단]

언론의 객관성에 대한 논의에서 객관성은 참된 객관성, 합의된 객관성, 수용된 객관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니 당연히 독자도 구분해서 읽어줘야 한다.

‘언론 보도의 객관성의 근거는 실제의 사건을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라고 하니 이는 수용된 객관성과 부합한다.

[2문단]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면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믿음과는 달리 실제 언론에서는 특정 경향성이 나타내어 객관성을 상실한다고 한다. 믿음과 실제 언론을 구분해서 읽어줘야 했다.

특정 경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열을 이어줘야 한다.

특정 경향성

일부 사실만 강조

윤색적 표현 포함

특정 관점에 근거해 평가적 함축 표현 사용

궁/부 의미의 함축된 표현 사용

그리고 전제된 가치의 문제, 일관성의 문제, 공정성의 문제가 계속 추가되고 있다는 걸 인식해 주면서 각각의 내용을 읽어줬으면 좋겠다. 당연히 그렇게 읽어줘야 한다.

[3문단]

언론이 왜 이런 경향을 보이는가에 대해 두 가지 해결 생각

1) 알지 못해 그러는 게 아니라 일종의 역사적 전통

2) 특정 독자층 유지, 광고 수입 확보 위한 전략적 경향성

위 내용을 읽어줬으면 좋겠다.

[4문단]

생략

Comment

굉장히 쉬운 지문이었다. 그리고 문제도 쉬웠다. 이정도 지문은 잘 읽은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 내용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 맞혔다고 좋아하지 말고 문제 틀렸다고 낙담하지 말자. 항상 뭘 배워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어휘 정리

절대적 : 비교하거나 상대될 만한 것이 없는 것

조용 : 원인에 따라 결과가 생김

전승 : 문화, 풍속, 제도 따위를 이어 받아 계승

유기 : 내다버림

1. ①

내용 일치 문항이야. 언론의 객관성 문제는 사실과 의견의 구분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해서 사실과 의견의 구분이 취재 보도 기준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는 건 전혀 아니지. 경향성이 나타나 객관성을 상실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경우랑 가치를 상실하는 거랑 구분해야 했어. 물론 마지막 문단에서 언론은 사실과 의견의 구분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걸 근거로 잡아도 됐어.

- ② 사실과 의견의 구분은 검증이 가능한 사실과, 주관적 판단이나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의견을 구분하면 기사의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한다고 했으니 영향을 끼치겠지.
- ③ 경향성이라는 게 언론의 계몽적 전통과 관계있는지를 묻고 있지. 언론의 경향성은 일종의 역사적 전통이라 했으니 당연히 적절하겠지.
- ④ 언론의 무지에 기인한 것은 아니지. 글의 마지막 부분에 제시된 정보는 굳이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바로 판단해야 해.
- ⑤ 마지막 문단에서 나오지. 언론은 사실과 의견의 구분을 객관적인 것처럼 전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어.

2. ③

㉠, ㉡, ㉢에 대해 묻는 걸 보니 이 세 가지 내용을 정확히 구분해 주고 읽었는지를 묻고 있는 문제네. ㉡은 취재, 보도의 절차 및 형식과 관련된다고 했으니 내용을 중시한다는 선택지는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지.

3. ②

㉠가 일관성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지? 아니지. 일단 일관성의 문제를 보면 동일한 사안을 상반된 가치, 이념, 주장, 판단 등을 동원해 편의에 따라 각각 다르게 평가하는 걸 말해. 각 후보는 의혹을 서로에게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일관성의 문제와 전혀 상관없어.

- ① ‘혈투’로 보아 과격하고 윤색적이지.
- ③ 이 후보의 입장만 드러내니 공정성 문제가 드러나지.
- ④ 이 후보의 입장을 지지하는 발언만 인용하면서 사실의 선택 문제를 드러내고 있지.
- ⑤ 전혀 근거 없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중간 상인 자영

[1문단]

미국 내 한국계 미국인들이 자영업을 많이 한다는 내용을 간략히 파악해주면 된다.

[2문단] ~ [3문단]

첫 문장에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 한국계 이민 사회에서 자영업 비중이 높은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니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를 읽어주면 되는 지문이다.

한국계 이민 사회에서 자영업 비중 높은 이유

- 1) 영어 능력의 한계
- 2) 주류 사회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경쟁 피할 수 있음

[4문단]

첫 문장을 보자. 불가피하게 자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민족적 자원과 개인적 자원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2, 3문단에 이어 이유를 더 추가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주목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민족적 자원

- 1) 종교 단체를 중심으로 조직화되어 환경 조성
- 2) 저임금 가족 노동 이용

개인적 자원

- 1) 한국에서 받은 높은 교육 수준이 기초 능력으로 작용
- 2) 한국에서 이룩한 사회적 배경

이렇게 민족적 자원과 개인적 자원을 구분해서 읽어주자.

[5문단]

첫 문장을 보자. '중간 상인 이론'으로 한국계 미국인이 자영업을 하는 이유에 대한 이유를 더 추가하고 있다. 계속 이유를 추가하고 있으니 차곡차곡 정리하면서 읽어줘야 한다.

[6문단]

5문단의 마지막에 덧붙여진 단점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 민족적 결속을 강화하는 내용이 나온다. 항상 이전 단락과의 연결성을 고려하며 읽어야 한다.

민족적 결속

장점

- 1)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
- 2) 유통 과정을 하나의 관리 체계로 결합
- 3) 관리자로부터 지원을 받음

단점

- 1) 시장 포화 현상
- 2) 다른 민족이 사업 기회에서 배제

[7문단]

이때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된다. 마지막 단락에서 허겁지겁 읽는 버릇을 버려야 한다.

Comment

아주 쉬운 지문이었다. 왜 미국 내 한국계 미국인들이 자영업을 많이 하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읽어주면 되는 지문이다. 이정도 글에서 어려움을 느낀다면 바로 책을 덮고 다시 기출로 돌아가야 한다.

4. ③

윗글의 핵심을 묻고 있는 문항이지. 왜 한국계 이민자들이 자영업을 많이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문제를 보고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지문을 읽으면서 차곡차곡 쌓아가며 읽어줬어야 했어.

한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으로 원하는 직업을 얻기 쉬워서 자영업을 했다고? 전혀 아니지. 2문단에서 한국에서 취득한 학력이나 자격증은 거의 인정받지 못했다고 했어.

- ① 민족적 자원이 있으니 당연히 적절한 선택지야.
- ② 역시나 민족적 자원에 대한 설명이지.
- ④ 이걸 핵심이지. 영어 능력의 한계가 있었다고 했어.
- ⑤ 주류 사회의 사람들과 직접적인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자영업을 하기 시작했으니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

5. ⑤

중간 상인 역할에 대해 묻고 있네. 중간 상인 역할 역시 미국 내 한국계 이민자들이 자영업을 하게 된 이유와 연관되어 있지.

5문단에 덧붙여진 중간 상인 이론의 어려움을 읽고 6문단에서 민족적 결속을 강화했다는 내용을 읽어줬다면 바로 정답을 쉽게 고를 수 있었겠지.

- ① 높은 이익을 보장했다고? 그런 내용 없지.
- ② 상류 계층? 아니지. 소득이 낮은 라틴계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중간 상인 역할을 했잖아.
- ③ 갈등이 있었지. 호의적 반응? 아니지.
- ④ 소규모 사업을 했잖아. 큰 규모의 자본 조달이 요구? 아니지.

6. ②

수직적 계열화에 대해 묻고 있네. 수직적 계열화는 민족적 결속에 대해 묻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수직적 계열화를 실시하면서 유통 과정을 하나의 관리 체계로 결합하고 유력한 한국계 도매상을 중심으로 주문을 하나로 모아 좋은 가격으로 공급자와 협상할 수 있었다고 하니 답은 쉽게 ②번으로 고를 수 있겠다.

대중의 보도 내용 수용 지문 개별

[1문단]

언론의 프레임 설정과 대중의 인식 정도에 따라 대중의 보도 내용 수용이 달라진다고 한다. 이 두 가지 내용에 따라 '부정 편향성 가설', '점화 효과', '위험 커뮤니케이션 증폭 모델'을 읽어보면 되겠다.

[2문단]

부정 편향성 가설

부정적일 때 대중이 보도를 더 주목
위험성이 클수록 부정 편향성 효과도 확대

점화 효과

매스미디어가 제공하는 소리나 이미지에 노출
두뇌 속 관련 이미지의 연상을 촉발

[3문단]~[4문단]

위험 커뮤니케이션 증폭 모델**1) 렌 모델**

정보원과 전달자의 이해관계나 요구 사항이 개입
수용자에게 보다 강한 영향력을 행사

2) 슬로비치 모델

언론의 집중 보도로 인한 위험 인지 증폭
보도 대상에 대한 신뢰 훼손과 부정적 이미지 강화

7. ②

과학기술 전문가가 위험 인지를 증폭시키기도 하는지에 대해 묻고 있네. '렌 모델'을 보면 정보원이 전달자에게 위험 사건을 전달하면서 정보원과 전달자의 이해관계나 요구 사항이 개입하여 위험 인지가 증폭될 수 있다고 했잖아. 따라서 위험 인지를 증폭시키기도 하겠지.

- ① 언론의 프레임 설정과 대중의 인식 정도에 따라 대중의 보도 내용 수용이 달라진다고 했으니 절대 동일한 반응을 유도한다고 볼 수 없겠지.

- ③ 과거 경험과 위험 인지의 상관관계를 묻고 있으니 '점화 효과'를 떠올리면 되겠지. 낮은 상관관계가 아니라 높은 상관관계를 갖을 거야.
- ④ 보도 내용의 위험성이 크면 부정 편향성의 효과도 확대될 것이라는 내용은 있어도 보도 내용의 전문성에 대한 내용은 없어.
- ⑤ '부정 편향성 가설'에 의하면 프레임이 긍정적일 때보다 부정적일 때 정보로서의 가치도 더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지. 그러면 긍정적일 때는 부정적일 때만큼은 아니지만 가치를 높게 인식할 수도 있겠지. 이걸 긍정적일 때 가치가 낮다고 생각하면 안 돼.

8. ②

윗글의 이론적 모델들로 설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을 골라 주면 되는 문제야. <보기>는 분석할 필요도 없이 너무 간단해. 그냥 읽어주면 되겠지. 그리고 바로 선택지를 판별해 보자.

언론 보도를 믿기 힘들어 정정 보도를 내도록 요구하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건 윗글에 나타난 그 어떤 이론적 모델들로 설명할 수 없어.

- ①, ③ 위험 인지가 증폭되어 보도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화되고 있네. 이걸 '슬로비치 모델'로 설명할 수 있어.
- ④ 과거 조류 독감 공포를 떠올리고 있으니 '점화 효과'로 설명할 수 있겠지.
- ⑤ 신약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로 인한 보도를 접한 뒤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확산되고 있지. 이걸 부정적인 보도를 대중이 주목하고 부정 편향성의 효과도 확대되는 '부정 편향성 가설'로 설명할 수 있겠지.

파수전 기능 지문 해설

[1문단]

파수전 기능은 언론 기관의 표현의 자유이다. 즉, 언론 기관에 부여되는 제도적 권리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기본권적 특성은 X 표시하자

[2문단]

2문단 들어오자마자 파수전 기능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라면 근거는 무엇이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으니 이에 대해 읽어보면 되겠다.

그 근거는 수정 헌법 제1조의 의미를 언론 기관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데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답변을 해주고 있다. 2문단은 언론 기관의 차원에서 수정 헌법 제1조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맞춰서 읽어주면 되겠다.

조항 : 언론의 자유

해석 : 비판적 언론 이데올로기, 견제 가치

상업주의적 폐해가 있더라도 파수전 기능 보호

공익을 위한 경우에 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 성립 불가

국가 기관에 대한 접근권 강화

[3문단]

3문단 들어오자마자 2문단의 내용은 헌법의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있고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비판을 받는다고 한다. 글의 범주가 달라짐을 알아차려야 한다.

글리슨이 명예 훼손 소송을 분석하면서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고 하니 명예 훼손 소송에 대한 내용을 읽으며 어떤 다른 시각을 제시하는지에 대해 읽어보면 되겠다.

[4문단]

언론 기관들은 명예 훼손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파수전 기능을 면책 특권으로 입법화하려고 했다.

법원은 파수전 기능을 긍정하였으나 진실 보도를 강조함. 여기서 글리슨 따로, 언론 기관 따로, 법원 따로 정보를 기억하면 부담되니 법원과 글리슨 그리고 언론 기관 이렇게 정보를 구분해주는 것이 좋다.

'파수전 기능을 합법적으로 보호하는 근거는 명예 훼손법 발전의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라는 문장은 앞서 2문단에서 던진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답이다.

Comment

글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읽어주면 되는 지문이다. 특히 3문단에서 글의 흐름이 달라진다는 걸 눈치채줘야 한다. 미세 팁을 하나 주자면 독해할 때 문단 앞에 번호를 매기고 시작하자. '이정도 길이의 지문'과 '4문단으로 구성된 지문'은 지문 장악 태도부터 다르다. 전자는 추상적이고 후자는 구체적이다. 이미 상대방의 사이즈를 추산하고 싸우는 것이다. 그뿐 아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정보를 찾을 때 '이 정보는 여기쯤... 있었는데'와 '이 정보는 3문단에 있었어'는 속도부터가 다르다.

9. ⑤

파수전 기능에 대해 묻고 있는 문제네. 파수전 기능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거니? 아니지. 언론 기관의 표현의 자유, 언론 기관에 부여되는 제도적 권리의 특성을 의미하는 거였지. 1문단에서 전혀 아닌 내용은 X 표시해두었으면 아주 쉽게 풀었을 거야.

- ① 2문단을 보면 적극적인 파수전 기능을 위해서 국가 기관에 대한 접근권을 강화하는 것과 같은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고 제안했지.
- ② 수정 헌법 제1조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파수전 기능의 핵심적 기능은 견제 가치였지.
- ③ 1문단을 보면 파수전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인식되어 왔다고 해.
- ④ 2문단을 보면 비록 언론의 상업주의적 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 권력의 남용보다는 폐해가 덜하기 때문에 파수전기능을 보호되어야 한다고 했지.

10. ③

글리슨의 연구에 나타난 사회적 상황에 대해 묻고 있네. 3문단부터 비판적인 흐름이 나온 걸 생각하면서 판단하면 되겠지.

- ㄱ. 4문단을 보면 명예 훼손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했지만 소송의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어.
- ㄴ. 명예 훼손법의 적용으로 인해 언론은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었지.
- ㄷ. 언론은 취재 과정상의 복잡성을 내세웠지만 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지. 따라서 언론사가 취재 보도 과정의 구조적 특수성을 법원이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볼 수 있어.
- ㄹ. ㄱ. 법원은 언론의 파수전 기능에 대해서는 긍정적 태도를 보였으나, 여전히 진실 보도를 강조함으로써 언론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지.

글리슨과 법원 그리고 언론으로 정확히 구분하면서 흐름을 장악하며 읽었다라면 쉬웠을 문제야. 정답은 ㄴ, ㄷ, ㄱ

11. ①

미국의 전통적 시각으로 〈보기〉를 해석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야. 언론 기관의 차원에서 수정 헌법 제1조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을 떠올리면 되겠지.

〈보기〉

공무원 : 명예를 훼손했으니 너 고소
S 신문사 : 공익을 위해 보도함

전통적 시각에서는 〈보기〉에 대해 언론 관련 규제가 최소한도로 제한되어야 하며 공익을 위한 경우에는 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이 성립될 수 없다며 적극적인 파수견 기능을 강조하겠지. 따라서 최소한도로 규제가 제한되어야 하니 면책 요건을 넓게 해석해야 할 거야.

동물 재판 지문 배열

[1문단]

주민의 변호인 : 인간은 자연을 지배할 권리를 가진다.
바구미의 변호인 : 동물은 번식과 생존할 권리를 가진다.

이처럼 대비하면서 읽었으면 잘 읽었다.

[2문단]

세속 재판 : 돼지, 소, 말, 개, 관습법
교회 재판 : 작은 동물이나 곤충, 교회법

세속 재판과 교회 재판을 구분하면서 읽어줘야 하는데 특히 관습법과 교회법을 각각 구분해서 읽어줬으면 잘 읽었다.

[3문단]

Q

동물 재판과 같은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관행이 어떻게 존재?

A

생활 조건과 동물의 의인화하는 민중 문화
특히 성, 속의 엘리트들이 이론적, 실무적으로 뒷받침

[4문단]

중세 초기 재판 제도

민사와 형사 재판 구별이 모호, 공적인 형벌 제도 없음

↓

새로운 재판 제도
합리적인 소송 규칙

이렇게 대비해서 읽어줬으면 잘 읽었다.

[5문단]

성, 속의 엘리트들이 동물 재판 관행을 이론적으로,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임이 첫 문장에서 드러나니 이를 잘 활용해서 읽어줘야 했다.

성서, 모세 율법 등을 원용하여 전거를 배치해둬
영원법과 자연법을 토대로 법적 효력 성립
→ 이를 통해 인간 사회뿐만 아니라 자연계까지 적용
→ 인간 중심적 법 개념에 의한 자연의 영유를 보여줌

[6문단]

문화적 퍼포먼스의 기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니 문화적 퍼포먼스의 기능에 대해 읽어주면 되는 문단이다.

문화적 퍼포먼스 기능

본성을 벗어난 동물을 처벌하여 혼란 극복하여 평상 복귀
그들의 세계와 질서가 안전하며 정당하다는 걸 확인

어휘 정리

원용 : 자기의 주장이나 학설을 세우기 위해 문헌을 끌어다 씀
전거 : 말이나 문장의 근거가 되는 문헌상의 출처
영유 : 자기의 것으로 차지하여 가짐

Comment

대비가 관건인 지문이다. 내용을 잘 구분해서 읽어줬으면 잘했다. 별 달리 어려울 것 없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문 길이도 짧으니 쉽게 읽었을 거라 본다. 아니라면 열심히 하자.

12. ④

자연법에 재판 절차에 관한 규칙이 있었는지를 묻고 있네. 4문단을 보면 새로운 재판 제도에서는 규칙이 있었는데 5문단에서 영원법과 자연법에는 규칙이 있었다는 내용이 없지. 이런 문제는 4문단 근거 확인하고 5문단 근거 확인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내가 무슨 정보를 읽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만 해줬다면 규칙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대해 쉽게 판단할 수 있었어.

- ① 교회 법원과 세속 법원의 구분을 묻고 있네. 세속 법원은 관습법에 따라 사형을 내렸고 교회 법원은 교회법에 근거하여 저주와 파문을 내렸지. 구분해서 읽어줬다면 아주 쉬웠을 거야.
- ② 이건 질문에 대한 답이니 당연히 쉽게 판단해줬을 거야. 3문단의 지문 설명을 참고하도록 하자.
- ③ 4문단을 보면 동물 재판은 공권력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된 새로운 재판 제도하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지.

- ⑤ 성서에 나오는 내용 등을 원용하면서 동물 재판 관행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제공했다고 하니 당연히 적절하겠지.

13. ⑤

[A]에서 언급한 동물 재판 기능에 대해 묻고 있네. 그러니까 문화적 퍼포먼스의 기능에 대해 묻고 있는 거야. 본성을 벗어난 동물을 처벌해서 혼란을 극복하게 하고 평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줬고 사람들은 그들의 세계와 질서가 안전하며 정당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지. 이렇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두면 ①, ②, ③, ④번 모두 꼼꼼하게 근거를 확인하는 것보다 빠르게 ⑤번을 고를 수 있었겠지.

14. ③

㉠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은 동물도 자연법이 인정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이전 지문 속에서 이미 대비하면서 읽어봤지?

이제 (가)를 보면 자연과 인간은 하나이고 인간이 자연에 대해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네. 따라서 법해석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니 도롱뇽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해.

(나)를 보면 법률도 없고 관습법이 통용되고 있지도 않는 이상 도롱뇽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해.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선택지를 들어가 차근차근 판단해보자.

(나)가 언급하는 법은 인정법이지. 그리고 ㉠은 자연법이지. 5문단을 보면 자연법에 반하는 인정법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했으니 ㉠은 자연법이 상위의 것으로 보겠네.

- ① (가)의 관점은 인간이 자연에 대해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고 ㉠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 (가)의 관점에 대해 ㉠은 동의하지 않겠지.
- ② (가)는 현행법에 근거하고 있고 ㉡은 자연법에 근거하고 있지. 둘 다 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아.
- ④ (나)는 인정법에 근거하고 있고 ㉡은 자연법에 근거하고 있지.
- ⑤ ㉠과 ㉡은 기본적으로 자연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신의 섭리 밖의 문제라고 보지 않을 거야. 5문단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어.

4차 지문 배열

[1문단]

대의 민주주의

유권자 : 주권의 일부를 대표자에게 위임

대표자 : 권한의 일부를 관료 또는 기타 독립 기구에 위임

‘대표자가 권한의 일부를 관료 또는 기타 독립 기구에 위임하는 행위가 왜 발생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서 읽어주면 되겠다. (그냥 막연히 후자와 같은 위임 행위라고 읽지 말 것.)

[2문단] ~ [4문단]

기능주의 이론

거래 비용을 절감하려는 합리적 선택

정보의 논리

전문 지식과 정보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선택

대리인이 더 많은 전문 지식과 정보를 가질수록, 주인과 대리인의 선호가 일치할수록 대리인에게 보다 많은 권한 위임

정보의 논리 비판

대리인의 선호와 배반이 사후적으로만 관찰된다는 점에서 위임의 설계 단계에서 적용하기 어려움

신뢰의 논리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합의를 이행하지 않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독립된 선호를 가진 대리인에게 보다 많은 권한 위임

신뢰의 논리 비판

주인들이 단기적 선호를 포기하고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면 집합 행동 문제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음

[5문단]

4문단 마지막에서 기능주의 이론이 아니라 정치적 거래 비용 이론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하니 정말 중요한 것은 정치적 거래 비용 이론의 관점임을 알 수 있으니 집중하자

위임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분배의 갈등에 기초한 경쟁 산물
= 현재 정책이 미래의 정치 권력에 의해 합법적으로 변경

정책의 지속성

정책을 정치 행위자들의 간섭과 각축에서 분리, 독립

위의 내용이 바로 1문단에서 던진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답임을 파악했다면 잘 읽은 것이다.

정치적 거래 비용이 커질수록, 대리인은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정책이 역전될 가능성은 줄어듦

[6문단]

정치 세력들 사이 정책 선호 차이가 클수록, 정치 세력이 다수일수록,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치적 거래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음

어휘 정리

상이하다 : 서로 다르다

15. ④

위임에 대한 필자의 주장을 묻고 있는 문제야. 필자는 왜 대표자가 권한의 일부를 관료 또는 기타 독립 기구에 위임하는 행위가 발생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정치적 거래 비용 이론의 관점으로 답했지. 따라서 정치적 거래 비용 이론의 관점으로 본다면 정책의 안정성을 위해 정치적 거래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지. 따라서 위임이 정치적 거래 비용의 절감을 위한 합리적 선택의 결과라는 건 적절하지 않은 선택이야.

- ①, ② 정치적 거래 비용 이론은 위임을 정치적 불확실성과 분배의 갈등에 기초한 정치적 경쟁의 산물로 이해했지. 당연한 선택이야.
- ③ 주인-대리인 모델로 설명하는 건 기능주의 이론이지. 필자는 위임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기능주의 이론이 아니라 정치적 거래 비용 이론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으니 당연히 한계가 있겠지.
- ⑤ 1문단을 보면 필자는 위임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대의 민주주의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했지.

16. ⑤

기능주의 이론 중 정보의 논리와 신뢰의 논리에 대해 묻고 있는 문제야. ㉠에서 발생하는 대리인의 배반은 사후적으로만 관찰되는 것이 맞아. 그러나 ㉡의 집합 행동의 딜레마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고 하니 위임 설계 후에 확인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지.

- ① ㉠은 대리인이 더 많은 전문 지식과 정보를 가질수록, 대리인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위임한다고 했지. 관계식은 항상 표시해두자.
- ② ㉡은 주인들이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합의를 이행하지 않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었지.
- ③ ㉠은 전문 지식과 정보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나왔고 ㉡은 장기적 이익 대신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왔다는 점에서 합리성과 효율성의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과 ㉡은 거래 비용에 정보 비용과 신뢰 비용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둘로 나뉘었으니 거래 비용의 상이한 측면에 주목하고 있겠지.
- ④ 위임 제도 설계 단계에서 정치적 경쟁 속에 있는 정치 행위자들의 관계를 고려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 거래 비용 이론에 해당하지.

17. ①

정치적 거래 비용 이론을 적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에 대해 묻고 있지. ①번 선택지를 보니 단기적으로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유혹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합의를 이행하지 않게 되는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니 이는 정치적 거래 비용 이론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기능주의 이론을 적용한 거지.

신제품 개발 방식 지문 배열

[1문단]~[3문단]

신제품을 개발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전략이 있다고 하니 이 두 가지 전략에 대한 내용은 신제품을 개발하는 방식에 대해 읽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자.

압축 전략

예측 가능한 단계들로 구성된 제품 개발 과정을 단축
단계들을 명확히 확립하고 분석한 후 쥐어짜기 통해 가속화
계획하기 통해 불필요한 단계 제거
전문 기술 활용하여 단계 간소화
개발 단계들을 부분적으로 겹치게 하여 시간 절약
여러 부서의 협력이 중요

[4문단]~[5문단]

경험 전략

시장 상황이 불투명하거나 첨단 기술 적용해야 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선택됨 (↔ 예측 가능한 단계들)
직관력 (↔ 쥐어짜기, 계획하기)
유연한 선택 대안 구사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반복적
경험적
즉각적으로 결정하기
실시간 교류와 경험
유연성
빈번한 이정표 관리
강력한 리더 (↔ 여러 부서 협력 중요)

경험 전략은 압축 전략과 대조적이라 했으니 위의 표시와 같이 내용을 대조하면서 읽었어야 했다. 그리고 압축 전략과 경험 전략에 배정된 각각의 개념어들을 연결하면서 그 정보가 섞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휘 정리

선형적 : 선처럼 길게 일렬로 나아가는 것

18. ⑤

‘경험 전략’의 특징에 대해 묻고 있네. 개발 활동 내용을 순차적으로 배열하고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건 ‘압축 전략’에 해당하지. ‘경험 전략’과 ‘압축 전략’의 내용을 정확히 구분해야 했고 그 정보들이 절대 섞여서는 안 돼.

- ① 즉각적이고 유연한 판단은 ‘경험 전략’이지.
- ② 실시간적 교류 활동 역시 ‘경험 전략’이지.
- ③ 반복 설계와 시험? ‘경험 전략’이지.
- ④ 공식적 점검을 수시로 진행? ‘경험 전략’이지.

19. ①

제품 개발 전략의 선택에서 고려해야 할 조건이라고 하네. 제품 개발 전략은 두 가지가 있었지.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걸 골라주면 되겠지.

개발에 허용된 시간? 개발에 시간이 얼마나 허용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으니 바로 정답!

- ② 계획 수립의 용이성은 ‘압축 전략’이 좋겠지. 계획하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효율적인 순서로 배열하여 시간을 줄일 수 있었으니까 말이지.
- ③ ‘압축 전략’은 예측이 가능한 단계들로 구성되어 있고 ‘경험 전략’은 시장이 불확실했지. 정확히 대비해서 읽어줬으면 쉬웠겠어.
- ④ 기업이 보유한 인적 역량에 대해 묻고 있네. ‘압축 전략’은 여러 부서의 협력 그리고 ‘경험 전략’은 강력한 리더 활용한다고 나와 있지. 역시나 대비하면서 읽어줬어야 해.
- ⑤ ‘압축 전략’은 협력 업체의 전문 기술을 활용했고 ‘경험 전략’은 첨단 기술을 적용했지.

인간 인지 발달 지문 개발

[1문단]

비고츠키 이론

인간 의식의 사회 문화적인 측면 강조

인간의 인지 발달을 설명하면서 ‘고등 정신 기능의 사회적 기원’을 강조

표상의 대상은 개인의 인식 이전에 이미 사회적으로 존재

고등 정신 기능

1) 사회적 국면

2) 심리적 국면

2-1) 심리 간 범주

2-2) 심리 내 범주

비고츠키 이론에 대해 연결하면서 읽어주고 각 국면과 범주를 구분해서 읽어줬으면 잘한 것이다.

[2문단]

심리 간 범주 상호 작용 내용이 심리 내 범주로 있는 그대로 옮겨 가는 것이 아님.

= 자기 조절 과정을 거치면서 심리 간 범주의 상호 작용 내용을 스스로 의미 있게 이해해 감

일반화된 문장을 통해 예시의 내용을 흡수해줬으면 잘 읽은 것이다. 즉, 예시의 내용을 자기 조절 과정을 거쳐 상호 작용 내용을 스스로 의미 있게 이해해 가는 걸로 읽어야 했다.

[3문단]

2문단의 내면화 과정이 근접 발달 영역에서 일어남.

= 실제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 사이의 간격

실제적 발달 수준

잠재적 발달 수준

내면화 과정에 대해 실제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을 구분해서 읽어줬으면 잘한 것이다.

[4문단]

근접 발달 영역에서의 교수 학습 구체적 설명

1단계 : 유능한 타인의 도움을 받아 과제 수행

2단계 : 학습자 스스로 학습 과제 수행

3단계 : 학습 목표 성취

4단계 : 새로운 성취 목표에 직면하여 근접 발달로 나아감

각 단계를 구분해서 읽어줬으면 잘한 것이다.

Comment

아주 무난한 지문이다. 특히 이 지문에서는 내가 무엇을 읽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와 정보들 간의 구분 능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20. ②

표상의 대상이 학습 이전에 개인의 내면에 존재하던 것인지 판단해 보면 돼. 1문단에서 표상의 대상은 개인이 인식하기 이전에 이미 사회적으로 존재했다고 했지. 따라서 학습 이전에 개인의 내면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쉽게 판단할 수 있어.

- ① 개인은 심리적 도구인 기호의 매개를 통해 내면화한다고 했으니 당연히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
- ③ 교수 학습 과정은 심리 간 범주와 심리 내 범주에서 일어나는 과정이지.
- ④ 잠재적 발달 수준은 앞으로 기대되는 정신 발달 수준을 나타낸다고 했으니 아주 적절하겠지.
- ⑤ 심리 간 범주에서 일어나는 상호 작용의 내용이 그대로 옮겨가는 게 아니라 자기 조절 과정을 거치면서 의미 있게 이해해 간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

21. ④

비고츠키의 이론을 잘 이해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야.
비고츠키의 이론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어.

- 1) 인식의 주체인 개인은 자기 조절 과정을 거치면서 심리 간 범주의 상호 작용의 내용을 스스로 의미 있게 이해해 간다.
- 2) 이런 내면화 과정은 근접 발달 영역에서 일어나는데 더 유능한 동료가 학습적 도움을 제공해 줌으로써 발달을 촉진해 줌.

따라서 나머지 선택지는 볼 것도 없이 ④번이야.

22. ③

비고츠키의 이론을 지지하는 가설에 대한 <보기>야. 비고츠키의 이론을 토대로 판단해 주면 되겠지.

- 1) 인식의 주체인 개인은 자기 조절 과정을 거치면서 심리 간 범주의 상호 작용의 내용을 스스로 의미 있게 이해해 간다.
- 2) 이런 내면화 과정은 근접 발달 영역에서 일어나는데 더 유능한 동료가 학습적 도움을 제공해 줌으로써 발달을 촉진해 줌.

이 두 가지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 보면 ㄷ. 선택지에서 A, B 집단 모두 협동적 상호 작용? 바로 의문점이 들어야 해. 즉, 더 유능한 동료가 학습적 도움을 제공해 줌으로써 발달을 촉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지. 따라서 ③번 선택지와 같이 고쳐주면 되겠다.

베이즈주의 지문 해설

[1문단]

경쟁하는 가설 중 하나를 선택할 때 경험적 증거를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세 가지 입장이 있다고 한다. 세 가지 입장을 읽을 때는 경험적 증거를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읽어줘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밑줄로 표시)

제거법

여러 가설을 세우고 경험적 증거로 경쟁하는 가설들을 하나씩 제거해 감

참임이 확실한 가설이 분명히 있고 경험적 증거가 나머지 가설을 분명하게 제외시킬 때 유용

[2문단]

제거법의 문제점

경험적 증거가 여러 가설에 부합하는 경우에 도움 안 됨.

[3문단]

제거법의 문제점은 고전적 귀납주의가 해결해 준다.

고전적 귀납주의

경험적 증거가 배제하지 않는 가설들 사이에서 선택을 가능하게 해준다.

특정 가설에 부합하는 경험적 증거가 많을수록 그 가설이 더욱 믿을 만하게 됨.

관련된 경험적 증거 전체를 고려하여 가설 선택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고전적 귀납주의와 제거법은 동일한 결론을 제시한다는 공통점도 따로 파악하도록 하자.

[4문단]

고전적 귀납주의의 문제점

가설의 신뢰도가 그 경험적 증거로 인하여 얼마나 높아지는지를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없음

베이즈주의

사전 확률이 새로운 경험적 증거에 의해 어떻게 새로운 신뢰도, 즉 '사후 확률'로 바뀌는지를 말해 주는 '베이즈 정리'라는 명확한 계산 방식

증거의 힘을 통해 새로운 경험적 증거가 가설에 대해 얼마나 강력한 증거인지를 판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고전적 귀납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했다.

[5문단]

4문단의 베이즈주의 입장을 예시를 통해 이해하면 된다.

[6문단]

베이즈주의에 대한 비판

과학자들 : 베이즈주의가 제시하는 가설 평가 방법은 과학자들의 실제 연구 방법과 일치하지 않음.

↑

베이즈주의 : 과학자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규범을 제시한 이론이다.

내용적으로 대비만 했어도 큰 어려움이 없는 문단이다.

23. ①

베이즈주의에 따르면, 사후 확률이 사전 확률과 같을 수 없니? 아니지. 주어진 가설의 신뢰도에 변화를 주지 않는 경험적 증거의 힘은 0이 된다고 했으니 사후 확률과 사전 확률이 같을 수 있지. 이 문제 역시 눈으로만 글자를 읽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바로 정답을 못 찍었을 거야.

② 정량적 수치로 표현할 수 있기에 순서대로 열거할 수 있지.

③ 사전 확률이 높다는 건 1에 가깝다는 거니까 사후 확률이 상승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든다는 얘기겠지.

④ 과학자들은 베이즈주의가 제시하는 방법이 실제 연구 방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비판을 했고 베이즈주의는 과학자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규범을 제시했다고 대응했지. 따라서 규범적 이론이라면 당연히 정당성이 위협을 받지 않을 거야.

⑤ 참이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가설의 사후 확률은 1이 아니니 가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때마다 높아지겠지.

24. ⑤

경험적 증거가 가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건 부정적인 경험적 증거를 말하는 거지. 이에 대해 3문단 마지막을 보면 고전적 귀납주의는 제거법과 동일한 결론을 제시한다고 했어. 따라서 다른 답을 내놓는다는 건 전혀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어.

① 제거법의 정의를 묻고 있네. 제거법은 여러 가설을 세우고 경험적 증거로 경쟁하는 가설들을 하나씩 제거해 간다고 했지. 따라서 둘 이상의 가설이 제기될 때 유용할 수 있어.

② 이건 제거법의 문제에 대해 묻고 있네. 경험적 증거가 여러 가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했지.

③ 특정 가설에 부합하는 경험적 증거가 많을수록 그 가설이 더욱 믿을 만하게 된다고 했지.

④ 관련된 경험적 증거 전체를 고려하여 가설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 평가가 가능하겠지.

25. ②

베이지주의 입장에서 〈보기〉를 해석해야 해.

A : 사전 확률 높음

(가), (나) : 더 확신하게 되었다고 하니 사후 확률 더 높음.

(다) : 아무런 도움 안 됨.

따라서 A와 (가), (나) 그리고 (다)를 모두 합하면 0보다 크겠지.



1등급으로 가기 위한 도화선

LEET, MEET, DEET, PEET, 사관학교, 교육청 등의 기관에서 출제된 문제들 중 수능에 적합한 문제들을 선별하였다. 부족한 부분에 대한 약점 체크는 물론이고 지문에 대한 핵심 해설을 수록하여 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